

학교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전북자치도교육청, 2학기 개학 대비 확진자 모니터링·예방수칙 안내 등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학기 개학을 대비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백일해,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학 이후 학교 안으로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전북교육청은 우선 체계적인 확진자 보고시스템을 구축해 일일보고를 통

한 모니터링으로 학교 내 확진자 현황을 파악한다. 학교는 매일 오전 11시까지, 교육지원청은 오후 2시까지 나이스를 통해 감염병 발생 보고를 하도록 했다.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5대 예방수칙도 안내했다. △올바른 손씻기 생활화 △기침예절 실천 △실내에서는 자주 환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의

표기관 방문해 진료받기 등이다.

이와 함께 학교 내 방역물품 적정비치, 정기 소독을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감염병 관련 예방 수칙 준수 및 모의훈련 실시, 유관기관과의 전문가 협의체 구성 등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교 내 감염병 집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감염병 환자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유관기관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학생과 교직원들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디지털교육 국제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2~16일까지 필리핀 카비테주를 방문해 디지털교육 연수와 컨설팅을 진행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전북형 디지털 교육 모델, 필리핀에 전파

전북자치도교육청, 카비테주 찾아 디지털교육 연수·컨설팅 필리핀 교원 수요 반영... ICT 활용 평가 등 내용으로 꾸며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디지털교육 국제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2~16일까지 필리핀 카비테주를 방문해 디지털교육 연수와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에서는 필리핀 카비테 현지의 교육 환경에 맞춘 디지털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필리핀 현지 교원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맞춤형 교육을 제공했다. 또한 그동안 지원된 인프라 활용 방법을 컨설팅하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필리핀 교원들의 수요를 반영해 코딩, AI 등 다양한 프로그래밍뿐만 아니라 ICT를 활용한 평가, 사이버 보안 등 정보교사들이 현장에서

작업 필요로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2005년 필리핀 카비테주와 업무협약을 맺고 약 20년간 디지털교육 지원 사업을 이어온 전북교육청은 필리핀 전역으로 협력 관계를 확대하기 위해 필리핀 교육부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양국 간 교육 협력의 새로운 장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필리핀 방문 단장으로 참여한 유정기 부교육감은 "이번 필리핀 디지털 교육 지원 사업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 양국 교육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협력의 시작"이라면서 "앞으로도 전북교육청은 글로벌 교육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세계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미

래 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익산학생교육문화회관 여름 독서교실 '성황리'

익산학생교육문화회관(관장 김형대)은 여름방학을 맞아 지난 1~14일 초등학교 3~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책속 예술세상'이라는 주제로 여름 독서교실을 진행했다.

이번 여름 독서교실은 음악·민화·패션·푸드아트·영화 등 예술의 여러 분야의 책을 읽어보고 독서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독후활동을 확충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순환자원' 김치 부산물을 친환경 종이로?

전북대 식품영양학과 학생들, 아이디어 경진대회 수상 '영예' 배추 겉잎 등 함유된 식이섬유 활용 종이 만들 아이디어 제시

전북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김현아·강다은·이승현 학생이 최근 한국식품과학회 국제 심포지엄 및 정기학술대회에서 개최된 학부생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김치의 미래가치 창출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표해 장려상을 수상했다.



전북대 식품영양학과 감각과학연구실(연구책임자 김미나경민 교수)에서 감각과학 분야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은 학업과 실업을 병행하면서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이번 경진대회를 준비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한국식품과학회는 매년 국제 심포지엄을 열면서 관련 전공 분야 대학생들의 아이디어 공모전을 함께 열어 창의성과 식품산업과의 연계성, 실현 가능성 등을 사전 평가한 뒤 구두발표를 통해 수상팀을 선정하

고 있다.

올해는 '식품의 미래가치창출'이라는 주제로 경진대회가 열렸다. 전북대 학생들은 한국식품연구원 부설 세계김치연구소에서 후원한 김치의 미래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 공모에 지원해 '순환자원인 김치 부산물을 이용

한 지속가능한 펄프와 종이'라는 아이디어를 발표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치 부산물은 김치 생산량의 17%를 차지하며 폐기물 처리비용만 연간 1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다.

학생들은 김치 부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부산물로 배출되는 배추 겉잎과 무 겉잎 등에 다량 포함된 셀룰로오스 등의 식이섬유를 활용해 비목재 펄프와 이를 활용한 종이를 만들겠다는 아이디어로 주목을 받았다.

김현아 학생은 "학업과 연구실 과제를 병행하며 정말 바쁜 와중에 동료들과 함께 대회를 준비했는데, 우리가 낸 아이디어들이 국제 학회에서 전문가들에게 인정받은 것 같아 뿌듯하고 기쁘다"라며 "우리의 아이디어가 향후 실제 제품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대 생명자원융합학과 정원 중심 치유 전문학과로

2025학년도 치유정원 등 치유 중심 강의 '여가혁명의 시대 가드너' 수요 증가 예상

신체적 재활과 정신적 회복 등 심신의 건강과 웰빙을 추구하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다양한 치유요법이 사회적으로 큰 흐름을 주도하면서 우리의 정원 역시 단순 여가활동 공간을 넘어 치유공간으로서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생명자원융합학과가 2025학년도부터 정원 중심의 치유 전문학과로 미래지향적인 변화에 나선다.

수능시험과 관계없이 만학도와 특성 화고졸 재직자 전형으로 신입생을 모집해 온 전북대 생명자원융합학과는 설립 후 지난 10년 동안 수많은 졸업생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중추적 인자로 활동하고 있음에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를 택했다.

일반 화과와 마찬가지로 매 해 수시와 정시로 나누어 신입생을 모집하는 생명자원융합학과는 국립대학 중 유일하게 정원을 중심으로 하는 치유분야 전공학과로의 변신을 통해 현재의 수요에 부응하고 더 나아가 미래 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치유분야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원 중심의 전문화된 커리큘럼으로 치유정원, 치유농업, 원예치유 및 동물매개치유 분야를 중점적으로 강의하며, 조경기사, 화훼장식기사 및 식물보호기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과목도 구성했다.

안득수 전북대 생명자원융합학과장은 "국내외적으로 머지않아 주 4일 근무제가 도입되면 여가문화가 획기적으로 변화할 시대가 곧 도래한다"며 "이러한 여가혁명 시대에 정원의 역할은 상상 그 이상이 되어 가드너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위상 또한 높아져 가드너라는 직업은 인공지능(AI) 시대에도 인생 이모작을 위한 최고의 직업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 개학 대비 위생관리 철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학기 개학을 맞아 학교급식 위생·안전 및 식중독 예방관리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 개학 대비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기구 등의 위생관리를 위해 2학기 급식 개시 이전에 소독 및 청소 등을 철저히 시행할 것을 안내했다.

특히 최근 식중독 의심 신고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모든 학교·유치원에서 2학기 급식 개시 전까지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안내했으며, 교육지원청에서도 학교장·급식종사자 등 연수 추진, 취약 학교·유치원에 컨설팅 지원 등 급식위생 및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학교급식의 위생관리 철저를 위해 8월 말~9월 초까지 전북도·시·군 지자체, 광주식약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학교 식생활관 및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서기 문예체건강과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개학 직후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식중독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등 2학기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 안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